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171-201  
<https://doi.org/10.29212/mh.2024..133.17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참전과 장수

박현규 | 순천향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목 차
1. 서론
  2. 정유재란 명 수군 파견 과정
  3. 『壬辰筆錄』의 陳璘 논평
  4. 『壬辰筆錄』의 鄧子龍 논평
  5. 고금도 관왕묘 조력자 季金
  6. 결론

**초 록** 본 논고에서는 정유재란 시기 고금도 통제영 시기 명 수군의 참전과 활동에 대해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명 수군의 파병은 정유재란 직전에 선조가 일본군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로지 주사이니 명 수군과 조선 수군이 연합하여 적들을 섬멸해 주기를 바라는 요청에서 발단되었다.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명 군부는 자국의 영해를 사전에 방비하고 조선 수군의 병력 부족을 들어 수군 5천 명을 편성하였다. 칠천량 해전 직후 명 군부는 크게 2차례 수군 조달 방안을 거쳐 총 2만 1천 명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순천 왜교성 전투 때 참전한 명 수군의 병력은 1만 9천 8백 명이고, 여기에서 미도착한 張良

相의 수군 1천 5백 명을 더하면 당초 명 수군 조달 방안의 병력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

陳璘은 당초 육군인 광동영병을 거느리고 육로로 오다가 도중에 수군부장 楊文의 질병으로 부임할 수 없자 그 직책을 이어받아 조선 해역에 참전한 명 수군을 총괄했다. 鄧子龍은 절강수군을 거느린 沈茂가 육군으로 보직 변경이 되자 그 자리를 이어받아 조선 해역에 나왔다. 참전 당시에 수족이 마비되고 귀가 먹었으나 노량해전 때 최일선에서 돌격하다가 끝내 전사했다. 진린이 등자룡이 높고 쇠약한데 참전했다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남겼듯이 명 수군의 수뇌부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은 견제와 마찰이 있었다. 季胤은 가장 먼저 고금도 통제영에 내려와 첫 번째 조명연합수군을 결성했다. 고금도 관왕묘의 창건은 진린이 주도하고, 계금이 조력했다.

주제어: 고금도 통제영, 고금도 관왕묘, 조명연합수군, 이순신, 진린, 등자룡, 계금

(원고투고일 : 2024. 10. 8., 심사수정일 : 2024. 11. 14., 게재확정일 : 2024. 11. 28.)

## 1. 서론

전남 완도군 고금도는 임진왜란 때 국운이 거의 꺼져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굳건히 지켜준 이순신의 삼도수군 통제영이 있었던 역사적 장소이다. 1598년(선조 31) 2월 17일에 이순신은 고하도에서 고금도로 진을 옮겨 고금도 통제영 시기를 열었다. 이 시기에 조선 수군의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조국을 침략한 일본 수군과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였다. 당시 명나라는 전투 수행할 수 있는 자국의 수군들을 보내어 조선 수군과 연합하여 일본 수군에 맞서 싸웠는데, 고금도가 바로 조명연합수군이 결성된 또 하나의 역사적 장소이다. 고금도 통제영 시기에 조명연합수군은 임진왜란을 사실상 종식한 노량해전에서 대첩을 거둘 수 있는 군사력 증강과 합동 작전의 기틀을 닦았다.

필자는 일전에 정유재란 발발부터 명량대첩까지 명 수군의 파병과 운영에 대해 고찰한 바가 있다.<sup>1)</sup> 이번엔 그 연구 작업의 연장으로 명 수군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經略御倭奏議』, 『壬辰筆錄』 등 국내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를 중심으로 명 수군이 조선 해역으로 파견된 과정과 명 수군의 수뇌부 역할을 한 세 명의 장수, 즉 陳隣, 鄧子龍, 季金の 활동 사항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임진필록』 중 진린 조항과 등자룡 조항은 다른 문헌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명 수군

1) 朴現圭, <丁酉再亂부터 鳴梁大捷까지 明 水軍의 派兵과 運營 고찰>, 『전라남도 정도 1000년의 해 명량대첩 기념 전남 권역별 학술 세미나』, 명량대첩기념사업회, 2018.09.08., 쪽45~62; 「명 邢玠 『經略御倭奏議』의 丁酉再亂 史料 考察」, 『中國史研究』, 113집, 中國史學會, 2018, 쪽35~62; 『임진왜란 중국 사료 연구』, 보고사, 고양, 2018.

수뇌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 외에서 명 수군의 파병 규모에 대해 여러 논고가 나왔으나 제1차 원전인 『경략어왜주의』를 활용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결과물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 2. 정유재란 명 수군 파견 과정

여기에서는 명 수군이 조선 전장에 나오는 과정에 대해 약술해본다. 1592년(선조 25) 4월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5월에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주축이 되어 옥포에서 일본 전선을 물리치는 첫 승전을 거두었고, 곧이어 사천, 당포, 당항포, 울포 등지에서 잇달아 일본 전선을 격파하였다. 8월에 한산도에서 대규모 일본 함대를 맞이하여 크게 격파하여 일본 수군의 전의를 상실시켰다. 이로부터 조선 수군은 사실상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에 대해 명 군부가 조선 전장에 보낼 군사를 편성할 때 후방 발해만 방어와 물자 해상 운송을 관장하는 수군 외에 따로 전투에 나설 수군을 파견하지 않았다.

1597년(선조 30) 1월에 정유재란이 발발하였다. 이보다 두 달 앞선 1597년(선조 30) 11월에 조선 조정은 명나라에 일본군이 재침해온다는 다급한 형세에 대한 주문을 보내면서 적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주사이니 浙·直·閩 등의 주사도 함께 보내 주어 한산 등의 조선 수군과 합동하여 적들을 소탕해주기를 요청했다.<sup>2)</sup> 또 정유재란 발발 직후에도 선조는 명 군문과 요동도사에게 명 수군의 파견을 요청하라는 전교를 내렸다.<sup>3)</sup>

2) 『선조실록』 29년 11월 10일(임인)조.

3) 『선조실록』 30년 4월 20일(경진)조.

한편 명 군부는 주화파에서 주전파로 바뀌었다. 1597년(만력 25) 3월 19일에 孫鑣이 경략에서 체직되고, 29일에 그 직책에 邢玠가 나섰다. 이보다 앞선 15일에 楊鎬가 경리에 임명되었다. 명 군부는 자국의 해양 방위와 조선 조정의 요청에 따라 수군의 조선 파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였다. 형개가 올린 「增調宣大薊遼兵馬覓調閩海商船疏」에는 자국 수군을 조선 해역에 보낼 이유와 방안이 적혀 있다. 한산도 통제영은 전라도와 등주, 내주, 천진을 지키는 요새지이다. 조선 수군의 숫자가 1만 명이라고 하나 실제 전투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은 5천 명이다. 따라서 조선 수군의 병력 부족이 자명하니, 절강수병 3천 명 외에 복건수군 1천 명과 오송 수군 1천 명을 증파해서 조선 해역에 보낸다.<sup>4)</sup> 다시 정리하자면 명 군부는 정유재란 초기 한산도 통제영이 건재했을 때 조선 해역으로 파견할 명 수군의 병력 인원을 총 5천 명으로 정했다.

1597년(선조 30) 2월에 조선 삼도 해역을 지키던 이순신이 조정의 명을 거역했다는 죄명으로 삼도수군통제사에서 체직되고, 원균이 그 직책을 이어받았다. 7월에 원균의 조선 수군은 조정의 명에 의해 부산포 해역까지 진격한 뒤 별다른 전공 없이 되돌아오다가 칠천량에서 일본 수군의 매복에 걸려 거의 전멸하였다. 곧이어 통제영이 있던 한산도를 비롯한 남해 제해권이 일본 수군에게 넘어갔다.

칠천량 패전은 조선 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명 군부에게 큰 충격이었다. 명 군부는 만약 일본 수군이 남해안과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면 조선 왕경(한양)과 발해만, 본토 연해안의 해상 안

4) 『經略御倭奏議』 권2 「增調宣大薊遼兵馬覓調閩海商船疏」: “至於倭奴多半依水, 閑山一島爲全羅·登·萊·天津咽喉屏翰之地, 此中朝鮮水軍頗稱強勁, 而近該經理撫臣查其數雖有一萬, 而堪戰止五千. 該臣已逆知其必不足用, 故於浙江水兵三千之外議增福建·吳淞兵船各一千.”

보를 보장할 수 없다고 여겼다.<sup>5)</sup> 이에 대해 접반사 張雲翼은 명 제독 麻貴와 상의한 긴급조치를 조선 조정에게 보고했다. 조선 수군은 남은 전선을 모아 물길이 험난하기로 이름난 안흥량에 해상 방어선을 구축하고, 명 수군은 강화도를 지키는 해상 방어책을 강구했다.<sup>6)</sup> 명 군부는 절직유격 徐成으로 하여금 전투 능력을 갖춘 절강수군 3천 명을 선발대로 삼아 급히 강화도로 보냈다. 하지만 도중에 서성이 질병으로 직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그 직책에 여순에 머물고 있던 계금으로 교체했다.

곧이어 명 병부는 조선 해역에 보낼 수군 증원 조달 방안을 수립했다. 조달 방안은 크게 두 차례 이루어졌다. 1차 조달 방안은 칠천량 이전에 수립했던 기존 방안, 즉 절강수병 3천 명, 오송수병 1천 명, 복건수병 1천 명 외에 남경수병 3천 명을 더하여 도합 8천 명을 보내는 것이었다.<sup>7)</sup> 2차 조달 방안은 1차 조정 방안 외에 절강수병 3천 명, 오송수병 1천 명, 복건수병 1천 명씩을 각각 증액 모집하고, 또 강북수병 3천 명, 광둥수병 3천 명을 각각 신규 모집하는 것이다.<sup>8)</sup> 명 군부는 1차 조달 방안과 2차 조달 방안을 거쳐 최종적으로 2만 1천 명을 정하였다. 명 신종은 병부의 요청에 따라 2만 1천 명으로 정하였다.<sup>9)</sup>

이어서 조선 참전에 나설 명 수군을 통솔할 수병부장 선정에

5) 『경략어왜주의』 권2 「催發水陸官兵本折糧餉疏」: “夫閑山島水兵, 朝鮮內地所恃以障西南半壁. 此而失守, 賊自西南沿海而下, 若南海, 若濟州, 折而向北, 若全羅, 若忠清, 若王京, 若黃海, 又王京之漢江, 江華, 折而正西, 若登·莢, 若天津, 再北則平壤之大同江, 再東北則義州之鴨綠江, 皆通一水, 皆可揚帆而來.”

6) 『선조실록』 30년 8월 15일(계유)조: “雲翼曰: 小臣有迷劣之憂, 浮海之賊, 若不意繞出西海, 則腹背受敵, 尤無措手之地. 如安興梁收聚船隻, 以爲防守之計, 爲今日最急矣. 上曰: 此意, 予曾於閑山見敗之日, 已言之矣. 聞清正至今不動云, 此甚可憂. 雲翼曰: 禍必生於所忽, 所當熟思而預處之. 信元曰: 收集餘船, 設一陣於安興梁, 又請天朝水兵, 駐於江華, 以爲聲援, 賊未得容易衝突. 備邊司必爲處置矣. 上曰: 此言是矣.”

7) 『경략어왜주의』 권2 「守催閩直水兵并募江北沙兵疏」.

8) 『경략어왜주의』 권2 「守催閩直水兵并募江北沙兵疏」.

9) 『명신종실록』 권314, 만력 25년 9월 12일(경자)조.

나섰다. 명 병부는 급사중 徐成楚가 천거한 원임부총병 楊文과 광동순안어사 劉會가 천거한 원임부총병 진린 등 2명을 후보로 올리니, 신종은 양문을 수병부장으로 삼았다.<sup>10)</sup> 그 대신 진린은 육군으로 뽑아 조선 참전에 나서도록 했다. 도중에 양문이 병이 나서 부임할 수 없게 되자, 육군으로 나섰던 진린을 수군 도독으로 올리고 조선 해역에 나서도록 했다. 반면 주우덕은 提督天津登萊旅順等處防海禦倭總官으로 삼아 후방인 발해만과 산둥 일대의 해상 방어를 맡도록 했다.<sup>11)</sup>

4월에 이순신은 옥사에서 방면되어 백의종군하다가, 8월에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용되었다. 칠천량 패전 이후에 남은 전선을 모으고 조선 수군 재건에 나섰지만, 수군 병력과 전함이 크게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9월에 조선 전함 13척, 초탐선 32척과 일본 함대 133척이 물살이 거세기로 이름난 명량(울돌목)에서 격돌하는 해전이 펼쳐졌다. 이순신은 ‘必死則生, 必生則死’의 자세로 사력을 다해 싸워 많은 일본 전선들을 격파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로부터 일본군은 서해로 해상 진출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었다.<sup>12)</sup>

명량대첩 직후 이순신은 여러 차례 진을 옮기다가 고군산도까지 올라갔고, 10월에 되어 다시 남하하여 전라 우수영, 보화도 등을 거쳐 고하도에 진영을 치며 겨울철을 보냈다. 1598년(선조 31) 2월 17일에 삼도수군통제영을 고금도로 옮겼다. 이순신은 고금도에서 전선을 건조하고 군량을 확보하여 칠천량해전 이후 무너졌던 조선 수군을 본격적으로 재건하는 터전을 마련했다.

한편 명 군부는 이순신의 명량대첩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자국의 수군을 모집하여 조선 해역으로 보내는 시간을 벌

10) 『경략어왜주의』 권2 「增調宣大薊遼兵馬覓調閩海商船疏」.

11) 『명신종실록』 권314, 만력 25년 9월 무신(20)일조.

12) 『선조실록』 30년 11월 10일(정유)조.

었다. 1598년(선조 31) 4월에 선발대로 나와 있던 계급의 절강 수병 3천 명이 고금도로 내려오면서 조명연합수군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7월에 진린의 명 수군 본진이 고금도에 내려오면서 조명연합수군이 본격적으로 결성되었다.

9월에 조명연합수군은 사로병진전략의 일환으로 순천만으로 진격하여 獐島를 장악하여 일본군의 해상 도주로를 차단했다. 곧이어 劉綎의 서로군과 협동하여 수륙으로 순천 왜교성을 공략하였다. 10월에 들어와서 순천 왜교성을 공략하는 수륙협동작전은 유정의 비협조, 小西行長の 완강한 저항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島津義弘의 사천왜성을 공략하던 董一元의 중로군이 패전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11월에 임진왜란을 사실상 종식을 고하는 대규모 전투인 노량해전이 펼쳐졌다. 조명연합수군은 순천 왜교성에 고립된 小西行長을 지원하고자 노량해협으로 들어온 島津義弘, 立花宗茂 등의 대규모 일본 함대와 격돌하여 2백여 척 분멸, 1백여 척 포획 등 대첩을 거두었다.

아래에 정유재란 때 참전한 명 수군의 병력 규모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선행학자들이 제시한 견해를 개관해본다. 선행학자들이 근거로 삼은 자료를 살펴보면 크게 『선조실록』 31년 3월 29일(갑인)조의 경리 양호가 보낸 사로군 편성 자문, 신흠 『象村集』 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記」, 諸葛元聲 『兩朝平攘錄』의 진린 휘하 병력 등이다. 여기에 대해 선행학자들은 상기 자료를 가지고 각자의 기준과 계산법에 따라 명 수군의 병력 규모를 1만 3천 명부터 3만 2백 9십 명까지, 노량해전에 참전한 명 수군의 병력 규모를 2만 3천 9백 명부터 2만 4천여 명까지로 보고 있다.<sup>13)</sup>

13) 이만웅, 『임진왜란해전사』, 청어담미디어, 서울, 2004, pp.259~251; 박제광, 「丁酉

또 일각 선행학자는 명 군부가 자신들의 성세를 가장하기 위해 명 수군의 실제 병력 규모보다 크게 부풀려 말했기 때문에 상기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등자룡은 진린의 부장이기에 휘하 수군 병력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또 1598년(선조 31) 3월 사로군 편성 자문 통계 가운데 1천 5백 명(장양상 수군을 지칭함)은 노량해전 때까지 미 도착하였다.

그런데 선행학자들이 상기 자료를 고찰할 때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 적지 않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은 명군 병력의 변화를 세세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명 장수는 조선 전역에 나올 때 도중에 보직 변경으로 다른 장수의 병력을 거느린 경우가 있다. 뒤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등자룡의 절강수군 3,154명은 원래 심무가 거느린 수병이었다. 도중에 심무의 보직이 육군으로 바뀌면서 등자룡이 대신 심무의 수군을 이끌고 조선 해역으로 나왔다. 신희의 『상촌집』에는 심무가 수병 1천 명, 등자룡이 수병 3천 명을 각각 이끌고 왔다고 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일부 선행학자가 등자룡 휘하에 수군 병력이 없다는 견해도 잘못되었다.

진린이 거느린 광동영병 5천 1백 명은 원래 육군이었다. 도중에 진린의 보직이 조선 해역을 총괄하는 수군부장으로 바뀌고, 진린이 거느린 광동영병은 吳廣에게 넘겨졌다. 오광이 대신 거느린 원 광동영병은 서로군 유정 소속에 편입되었다.<sup>14)</sup> 따라서

再亂期 朝 · 明水軍의 聯合作戰과 露梁海戰, 『이순신연구논총』, 6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6, pp.8~9; 이상훈, 「임진왜란 전 이순신의 행적과 가문의 상황」, 『이순신연구논총』, 10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8, pp.96~97; 이종화 · 윤현식, 「노량해전의 조명연합수군 규모」, 『군사』, 126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3, pp.98~105 등.

- 14) 『경략어왜주』 권4 「補統領廣兵副將疏」: “而臣以廣兵陸兵也, 急不得相宜之將, 故暫屬陳璘統領, 而仍以書達部, 再加詳擇相應之將代之. 如有將, 異日仍當屬之劉綎. --- 查得吳廣原系粵將, 素與此兵相習, 合即以本官充統領廣兵副總兵.”

진린의 원 광동영병은 조선 참전 명 수군의 병력 규모를 계산할 때 삭제해야 한다.

이천상의 수병 2천 7백 명은 단독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진린이 통솔한 수군 병력에 포함해야 한다. 이천상은 조선 해역에 나왔을 때 직급이 부장급인 천총인데, 노량해전 때 일본군 269급 등 큰 전과를 거둔 공적으로 유격으로 승진되었다. 따라서 이천상의 수병은 중복되기에 삭제해야 한다.

萬邦孚의 남경수병 2천 2백 8십 명은 후방인 발해만 해역을 지키기 위해 요동에 주둔했다. 또 白斯淸의 복건수병 1천 6백 명, 張良相의 수병 1천 5백 명(일설 3천 명), 병력 미상의 吳宗道 수군과 賈祥 수군 등은 노량해전 이후 또는 조선 선후책의 일환으로 들어온 수병이다. 따라서 이들 수병도 사로병진전략 또는 노량해전 때 수군의 병력 규모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칠전량 패전 직후에 명 군부가 최종적으로 세웠던 수군 조달 병력은 2만 1천 명이다. 이후 명 군부가 병력을 조달함에 미세한 조정이 있었겠지만, 사로병진전략이나 노량해전 때에는 최종 계획상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1598년(선조 31) 10월 12일에 이덕형이 서로군과 수로군이 순천 왜교성을 공략한 것을 실패했다는 일을 치계한 뒤에 적은 실록 기록에서 명 수군의 병력이 1만 9천 4백 명이라고 했다.<sup>15)</sup> 이 숫자, 즉 1만 9천 4백 명에다 순천 왜교성 전투 시점까지 도착하지 않았던 장양상의 수군 1천 5백 명을 더하면 당초 명 군부가 세웠던 수군 조달 병력인 2만 1천 명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조명연합수군이 순천 왜교성 전투가 펼쳐진 순천만에서 곧장 노량해협으로 이동했기에 노량해전 때 참전한 명 수군의 병력 규모는 순천 왜교성의 병력 규모인 1만 9천 4백 명에

15) 『선조실록』 31년 10월 2일(갑자)조

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 종합하면 명 군부가 최종적으로 세웠던 수군 조달 병력은 2만 1천 명이다. 이들 가운데 장양상의 수군 1천 5백 명만 노량해전 이후에 들어왔고, 나머지 1만 9천 4백 명은 이순신이 살아있을 때 고금도 통제영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 3. 『壬辰筆錄』의 陳璘 논평

『임진필록』은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 문무 장리의 행적을 기술한 책자이다. 『임진필록』 책자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필자가 따로 발표한 논고가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sup>16)</sup> 『임진필록』 가운데 명 수군을 이끌어간 수뇌부 장수인 진린과 등자룡의 기록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진린 기록의 전문을 옮겨본다.

도독 진린의 자는 朝爵이고, 호는 龍崖이며, 廣東 羅定州 東安縣 사람이다. 무술년에 수군을 이끌고 나왔다. 사람됨이 질박하고 끈고 전투를 잘하였다. 노량대첩으로 사로군에서 으뜸이 되었다. 그러나 성품이 잔인하고 포학하여 지나가는 주·군의 수령들이 붙잡혀 곤장을 맞지 않는 자가 없었다. 노량해전 때 小西行長이 유정·진린과 강화를 모색하면서 유정 진영에게 수급 2천 급, 진린 진영에게 수급 1천 급을 보내주기로 약조하니 포위망을 풀어주기를 원했다. 도독이 말하기를 “나에게 1천 급을 더해 보내주면 약조대로 행하겠다.” 小西行長이 연일 무수한 금은 비단을 보내주자, 도독은 이를 모두 받았다.

하루는 小西行長이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사위가 南海에 있

16) 朴現圭, 「對壬辰倭亂中明軍相關史籍—《壬辰筆錄》의考察」, 『中華文明與古代中外關係國際學術研討會』, 山東大學歷史文化學院, 2023.10.14. pp.221~242.

으니 만나 함께 일을 도모하고자 하니 한 선박을 보내어 불러오기를 원합니다.” 이순신이 말하기를 “이 적이 사위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병을 청하는 것이니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 도독은 이를 듣지 않았다. 18일에 소선 1척을 보내주었는데, 왜인 8명이 타고 있었다. 22일 밤에 이순신이 말하기를 “왜선이 떠나간 지 이미 4일이 되었으니 구원병이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가 먼저 섬에 가서 지킨다면 저들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도독이 이를 따랐다. 4경에 출발하여 해양 바깥에 이르니 구원하는 적이 이미 들어왔기에 합동 공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小西行長은 구원병이 패한 것을 바라보고는 먼저 도망쳤다. 당시 만약에 투합하여 급습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적선들이 들이닥쳐 주사들을 협공하고, 小西行長은 유정과 결전을 펼쳤을 것이다. 도독이 이순신의 책략을 듣는데 힘입어 결국 성공하게 되었다. 이순신이 돌아가자 도독은 슬프고 서럽게 울었고, 조의 물품이 아주 후하였다. 돌아오는 도중에 牙山을 찾아가 (이순신) 영구에 곡을 하고 처와 자식에게 조문한 뒤에 떠났다.<sup>17)</sup>

여기에서 진린의 고향을 羅定州 東安縣으로 적었다. 동안현은 1577년(만력 5)에 德慶州와 新興縣에서 분리된 행정구획이다. 1914년에 雲浮縣로 바뀌었다가 1994년 시로 승격되었다. 진린의 원 고향은 韶州 翁源縣이다. 옹원현 周陂鎮 龍田村에는 진린 조상의 분묘들이 남아 있다. 진린이 東安參將을 맡을 때 가솔을

17) 『壬辰筆錄』 陳麟 조항: 「陳都督璘, 字朝爵, 號龍崖, 廣東羅定州東安縣人. 戊戌領水軍出來, 爲人樸直, 善戰, 露梁之捷, 爲四路最, 然性殘暴, 所過州郡守令無不被拿棍者. 露梁之戰, 行長與劉·陳講和, 劉處約送首級二千, 陳處約送首級一千, 督曰: “加我一千, 可以如約.” 行長連日餽以金銀錦綺無算, 都督悉受之. 一日, 行長使人乞曰: “有增郎在南海, 欲邀與計事, 請出一船以招之.” 李舜臣曰: “此賊非邀其增, 乃請援兵, 決不可許.” 都督不聽. 十八日, 出送一小船, 坐倭八人. 二十二日夜, 舜臣曰: “倭船出去已四日, 援兵當至, 我船先守驪島, 則彼無能爲.” 都督從之, 四更出船, 至洋外, 則賊救已至, 合擊大破之. 行長望見援兵之敗, 先遁. 當時若不相機急擊, 則賊船大至, 合攻舟師, 而行長則欲與劉擬決戰. 賴都督聽舜臣之策, 迄至成功. 及舜臣之亡, 都督哭之慟, 賻贈甚厚, 來途入哭靈柩於牙山, 弔其妻子而去。」

데리고 동안으로 이주하여 제2의 고향이 되었다. 진린의 성품은 질박하고 직설적이다. 韶州都護, 拓林守備, 肇慶遊擊, 狼山副總兵 등을 역임할 때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면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1593년(만력 21)에 진린은 복건과 광둥 해역을 담당한 南澳副總兵이 되었다. 곧이어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진린은 한때 천진, 등주, 내주, 여순 등지의 북방해역을 관장할 防海禦倭總官 또는 水兵副將의 후보에 올랐으나, 周于德과 楊文이 각각 그 자리에 임명됨에 따라 무산되었다.<sup>18)</sup> 1597년(만력 25) 9월에 진린은 명 군부의 명에 따라 다시 부총병으로 기용되어 광둥영병 5천 1백 명을 거느리고 조선 전역에 나섰다.<sup>19)</sup> 진린의 광둥영병은 육군이다. 북경과 화북을 잇는 張家灣,<sup>20)</sup> 중원과 북방의 경계인 山海關을 거쳐 육로로 요동으로 향하였다.<sup>21)</sup> 그러다가 1598년(만력 26) 초 명 군부의 사로병진전략이 수립될 때 진린은 欽差統領水兵禦倭總兵官으로 보직 변경되어 수로군을 총괄했다. 당시 명 군부는 강화도를 기준으로 북쪽 해역은 주우덕이 맡고, 남쪽 해역은 진린이 맡도록 했다.<sup>22)</sup> 7월 16일에 진린은 명 수군의 본진을 거느리고 충청 당진을 거쳐 삼도수군통제영이 있는 고금도에 도착하였다.<sup>23)</sup> 이로부터 본격적인 조명연합수군이 결성되었다.

18) 『명신종실록』 권314, 만력 25년 9월 20일(무신)조 및 『경략어왜주의』 권2 「增調宣大薊遼兵馬覓調閩海商船疏」.

19) 『명신종실록』 권314, 만력 25년 9월 9일(정유)조: “起陳璘爲副總兵, 統領廣東營兵五千赴朝鮮援救.” 여기에서 진린이 거느린 광둥영병의 인원수가 5천 명으로 적고 있는데, 아래 주석에서 기술할 『경략어왜주의』 「催發續調兵馬疏」에 따라 5천 1백 명으로 수정 보완했음.

20) 『경략어왜주의』 권4 「催發續調兵馬疏」: “查得續到陸兵內陳璘所統廣兵五千一百名, 已于三月二十一由張家灣起行.”

21) 『명신종실록』 권321, 만력 26년 4월 8일(임술)조.

22) 『선조실록』 31년 4월 3일(정사)조.

23) 『이충무공전서』 권9 李芬 「行錄」: “(계해)七月十六日, 天朝水兵都督陳璘, 領水兵五千來到.”

이보다 앞서 7월 8일에 이순신은 韓孝純으로 추정되는 선비에 게 보낸 서찰에 도독 진린이 내일 진중에 당도한다고 하니 계급과 함께 강진으로 가니 보름 사이에 한 번 왕립하여 도독의 위풍을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사를 물어보았다.<sup>24)</sup> 따라서 진린은 7월 9일경에 강진에 도달한 뒤 잠시 머물다가 16일에 고금도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9월에 사로병진전략이 펼쳐졌다. 유정의 서로군과 진린의 수로군은 합동하여 육·해로로 小西行長의 순천 왜교성을 공략에 나섰다. 이들은 한때 육지에서는 순천 왜교성의 외곽 철책, 바다에서는 순천 왜교성의 바다 밀동까지 진격했으나, 서로군과 수로군 간의 비협조, 小西行長의 완강한 저항 등으로 큰 전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때마침 董一元의 종로군이 사천전투에서 패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더 진격을 멈추고 관망 자세로 돌아섰다.

한편 小西行長은 豐臣秀吉의 사망과 五大老의 명에 따라 일본 열도로 철수할 계획을 세우고 뇌물 공세를 펼치며 진린과 유정에게 접근하였다. 유정은 일찌감치 小西行長의 뇌물 공세를 받고 순천 왜교성을 공격하는 일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진린은 자신이 받는 수급이 유정보다 적다며 불만을 터트리며 만약 수급을 더 준다면 순천 왜교성의 해로 포위망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곧이어 많은 뇌물을 받은 진린은 小西行長이 남해왜성에 주둔한 사위 宗義智와 만나 이 일을 상의해야 한다는 음모에 넘어가 연락선이 포위망에서 빠져나가도록 묵인해주었다.<sup>25)</sup>

24) 이순신 무술 7월 8일 간찰한효순: “陳都督明日間當到陣, 孤哀與季爺偕往康津, 月望間枉見都督威風如何?”(이상훈, 「李舜臣 簡札에 보이는 明 水軍의 參戰 初期 樣相」, 『해양문화연구』, 9집,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3, p.86)

25) 『李忠武公全書』 권13 「紀實」 중 「宣廟中興志」 참조.

小西行長이 진린에게 뇌물로 접근하여 남해왜성에 주둔한 사위 宗義智와 통교한다는 첩보를 접한 이순신은 진린을 찾아가 이것은 사위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병을 청하는 것이라며 허락해주지 말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진린은 이순신의 말을 듣지 않고 小西行長이 보낸 왜인 8명의 소선 1척을 놓아 주었다.

며칠 후 이순신은 다시 진린을 찾아가 적의 소선이 떠난 지 4일이 되었으니 구원병이 반드시 올 것이니, 먼저 노량 바다로 이동하여 적선을 기다리면 승세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진린은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순신과 함께 노량 앞바다로 이동하여 노량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島津義弘의 대규모 구원함대를 맞서 싸워 수백 척을 깨뜨리는 대첩을 거두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보인다. 만약 진린이 이순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오히려 일본 구원함대로부터 협공당하여 조명연합수군에 큰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순천 왜교성을 지키는 小西行長도 서로군 유정과 결전을 펼치고 명군 전체에게 큰 타격을 입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진린이 이순신의 말을 듣고 전군을 노량 앞바다로 출정하여 대첩을 거두는 쾌거를 거두었다.

진린은 이순신과 첫 만남부터 진심을 드러내고 교유하고 싶은 걸출한 장수로 받아들였다. 7월 진린은 명 수군의 본진을 거느리고 고금도 해역에 들어오니, 이순신이 최대한 예를 갖추어 친히 영접하고 풍성한 음식을 마련해서 명 수병들까지 접대하는 모습을 보고 비범한 장수인지를 감지했다. 조명연합수군이 본격적으로 결성된 직후에 절의도해전이 펼쳐졌다. 진린은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출격하여 일본 전선을 깨부수는 장면을 지켜보고, 또 조선 수군이 거둔 일본군의 수급을 자신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이순신이 도량을 갖춘 장수임을 깨달았다.

11월에 진린은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전사하자 무척이나 비통하였다. 이후 전란이 마무리되자 진린은 해로를 통해 한양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특별히 이순신의 영구를 찾아보고 가족들을 조문할 목적으로 선박에서 내려 신창을 거쳐 아산으로 들어갔다. 이 사실은 李芬의 『(이순신)行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진린은 신창에 들어와서 먼저 차사를 보내 조문을 하겠다는 말을 전하였다. 때마침 군문 형개의 차관이 와서 급히 상경해야 한다며 재촉하는 바람에 조위금 백금 수백 량을 보내고, 아산에 들어와서 이순신의 아들들을 불러 길에서 만나 조문했다.<sup>26)</sup>

#### 4. 『壬辰筆錄』의 鄧子龍 논평

『임진필록』에 기술된 등자룡 논평을 옮겨본다.

부총병 등자룡은 □□□ 사람이다.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 손과 발이 모두 마비되고 또한 귀가 먹었다. 노량전투 때 선박에 불이 나서 적에게 살해되었다. 일찍이 도독 진린이 이순신의 말에 따라 나가고 물러나는 것을 나무라며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도독이 이순신의 부장이 되었다.” (등자룡이) 전사하자, 도독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늙고 쇠약하여 당초 출전하지 않아야 했다. 이제 죽게 되었으나 또 누구를 원망하리오?<sup>27)</sup>

26) 『이충무공전서』 권9 李芬 「行錄」: “都督入新昌縣, 先通來祭之意. 適邢軍門差官催上王京, 故都督只以白金數百兩齎送之, 至牙山縣, 邀見公之諸孤, 蒼往遇於道, 下馬謁之, 都督亦下馬摻手痛哭.”

27) 『壬辰筆錄』 鄧子龍 조항: 「鄧副總子龍, □□□人, 年過七十, 手足俱不仁, 且耳聾. 露梁之戰, 火發其船, 爲賊所殺. 嘗譏陳都督進退必從李舜臣之言, 曰: “若此, 則乃都督爲舜臣副將也.” 及死, 都督曰: “此人老衰, 本不當出來, 今雖死, 又誰咎乎?”」

여기에는 기존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첫째, 등자룡의 건강 상태였다. 등자룡의 나이가 70세 넘어 손과 발이 마비되고 귀가 먹었다. 둘째, 진린과 등자룡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진린이 이순신의 말을 따라 군사 진출을 행하자, 등자룡은 이와 같으면 도둑 진린이 이순신의 부장이 되었다고 비난했다. 등자룡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자, 진린은 등자룡이 늙고 쇠약한 몸으로 출전하다가 죽었다고 누구를 원망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아래에 등자룡이 조선 출전에 나선 과정과 전사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등자룡의 나이에 대해 등자룡 집안의 문헌 기록과 집안 바깥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는 점부터 적어본다. 등자룡의 집안 기록인 「家人旺八續報」는 등자룡이 1531년(가정 10)에 태어나서 1598년(만력 26)에 돌아갔다고 했다.<sup>28)</sup> 향년 68세이다. 반면 집안 바깥의 문헌 기록은 모두 등자룡의 나이가 70세 또는 70세가 넘는다고 적어놓았다. 『임진필록』과 『象村集』은 등자룡이 조선 참전에 나설 때 나이가 70세라고 했고,<sup>29)</sup> 『明史』 「鄧子龍傳」에서는 등자룡이 조선 참전에 나설 때의 나이가 70세가 넘었다고 했다.<sup>30)</sup>

등자룡이 조선 참전에 나설 때 나이가 등자룡 집안의 문헌과 집안 바깥 문헌의 기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70세 전후의 고령임이 분명하다. 이때 등자룡은 수족이 마비되고 귀가 먹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데도 등자룡은 장수로서 전장에서 공적을 세우고자 하는 심리에서 자신의 건강

28) 『橫戈存稿』 「家人旺八續報」: “老爺(등자룡)於萬曆二十六年戊戌十一月十九日辰時, 歿於朝鮮國順天府南海露梁島地名, —— 老爺生於嘉靖十年辛卯庚子月丙辰日壬辰時.”

29) 『象村先生集』 권57 「曹副總票下官」: “鄧子龍以欽差備倭副總兵署都督僉事令水兵三千, 戊戌六月從水路, 九月到古今島, 十月戰亡, 時年七十.”

30) 『명사』 권247 「鄧子龍傳」: “子龍素慷慨, 時年踰七十. 意氣彌厲. 欲得首功, 急携壯士二百人躍上朝鮮舟, 直前奮擊, 賊死傷無算.”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기꺼이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어서 등자룡이 조선 전역에 참전한 과정을 적어본다. 1593년(만력 21)에 등자룡은 隴川, 干崖, 南甸 등지로 공격해오는 미얀마 군사와 맞서 승전을 거두었으나, 운남순찰어사 馮應鳳으로부터 적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는 탄핵을 하는 바람에 끝내 혁직되고 고향 풍성으로 돌아갔다.

1598년(만력 26)에 명나라는 자국 발해만과 조선 해역을 지킬 수군 장수의 부족 현상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당초 발해만을 지킬 수군부장 楊文이 질병으로 부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군문 형개는 육전에 적합한 장수는 많으나 수전에 적합한 장수가 적다며 재야에 있는 등자룡이 수전에 뛰어나다며 기용해서 旅順等處水營副總兵으로 삼았다.<sup>31)</sup> 등자룡 자신도 평생 수전에 능하고 자신이 세운 전공이 절반 바다에 있으며 적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여주었다.<sup>32)</sup>

곧이어 당초 절강수군을 거느리기로 했던 유격 沈茂가 자신은 수전보다는 육전에 강하다며 보직 변경을 요청해왔다.<sup>33)</sup> 이에 대해 형개는 萬世德의 조사를 거쳐 사실을 파악한 뒤 병부를 통해 주본을 올렸고, 4월에 신중은 등자룡에게 심무의 절강수군을 거느리고 조선 해역에 나서도록 재가했다.<sup>34)</sup> 등자룡이 거느린

31) 『경략어왜주의』 권4 「催發續調兵馬疏」: “該兵部覆議 一一 再照今日之役, 以計征調不爲不多, 以供戰守不爲不足, 仍其用聚用寡之妙, 可水可陸之奇, 其機不在兵而在將領. 今三師陸地并馳, 已成鼎峙之勢, 而各營副 協亦不乏人, 獨水營雖有周于德總之, 然協守未備, 終非完局. 先該督臣于楊文患病之後, 久以擇人以代, 奈未有當者. 蓋近來將官宜于陸者多, 宜于水者少, 人各有其長, 未可強用其短耳.”

32) 『경략어왜주의』 권4 「催發續調兵馬疏」: “頃據取到聽用原任副總兵鄧子龍稟稱, 生平慣于水戰, 立功半屬鯨波, 且有橫海搗虛, 誓不賊俱生之志, 以補楊文員缺似屬相位.”

33) 『경략어왜주의』 권4 「催發續調兵馬疏」: “又據浙江管領水兵原任遊擊沈茂稟稱, 奉文取用順領船兵, 及稱平生涉歷山林川澤, 陸地決鬪似優于水戰, 則本官之技能長短大都可知. 一一 應并行天津海務撫臣, 俟沈茂督兵到鎮之日, 再加面試, 果無長于樓船而長于陸技, 即改從陸用之責, 令星夜馳赴經略標下, 廳拔陸兵管領得職銜. 定議咨部, 以憑奏請. 所有順領船兵, 即以付之鄧子龍, 亦一便也.”

원 심무의 절강수군은 3,154명이다. 『상촌집』에 등자룡의 수군이 3천 명, 千萬里的 『思庵實記』에 등자룡의 수군이 4천 명으로 적어놓았는데, 모두 개략적인 숫자이다.

등자룡이 절강수군을 거느리고 조선 참전하는 과정도 순탄치만 않았다. 후방 발해만을 지키는 수군부장에서 조선 해역에 나가 참전하는 장수로 나섰으나, 급작스러운 보직 변경과 준비가 많은 수군 특성상 진군 속도가 한참 늦어졌다. 과신 張輔之는 조선 해역의 사정이 급한데 등자룡은 공을 세워 속죄해야 하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두 차례 강하게 비난했다.<sup>35)</sup> 급사중 徐觀瀾도 등자룡이 한가하게 머물며 진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본을 올렸다.<sup>36)</sup>

게다가 중군 方日新이 거느린 전선이 조명연합수군의 고금도로 내려가는 도중에 치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일신은 원래 심무의 중군이었는데, 등자룡의 소속으로 바뀌었다. 9월 9일에 방일신의 절강전선이 예로부터 거센 해역으로 알려진 충청도 九龍島에서 갑자기 돌풍과 파도가 솟구치는 바람에 선체가 파손되어 소선으로 갈아타고 탈주하다가 상륙 직전에 의사 당했다.<sup>37)</sup>

34) 『명신종실록』 권321, 만력 26년 4월 2일(병진)일조: “兵部題稱: 一頃據取到聽用原任副總兵鄧子龍, 慣習水戰, 宜令戴罪管旅順等處水營副總兵事, 責選精堅統領出洋, 便宜掃穴截糧, 扼衝邀擊, 與陸兵互相夾持. 其管領水兵遊擊沈茂, 陸鬪優于水戰, 宜改從陸用之, 所領水兵即以付之鄧子龍, 亦一便也. 從之.”

35) 張輔之 『太僕奏議』 권2 「防播剿倭疏: “至所稱水師獨守海島, 則僅僅季金三千耳. 一最可恨者, 鄧子龍以債轅債帥, 戴罪立功, 職在統兵出奇, 橫截海面, 乃用兵之地, 曾無子龍之迹, 何耶?”; 권3 「島山功罪未明疏: “臣等近取旬月章奏, 反復看詳, 見勘科本月十七日一疏, 其參鄧子龍逗遛避戰是也. 乃鄧子龍原有死罪, 招由暫令立功自贖, 而遷延候事, 功無足贖, 即死亦何詞.”

36) 『선조실록』 31년 12월 14일(을축)조.

37) 諸葛元聲 『兩朝平攘錄』 권4 「朝鮮: “忠清道有九龍島者, 水族靈怪着聞. 浙水營中軍方日新, 統浙兵三千, 自義州卸糧, 將赴鼓今島(古今島의 오기)鄧子龍所, 九月念九日至島, 夜發定更, 銃驚動水族, 海颶頓起, 波濤播蕩, 下觸鐵板沙, 二更樓船首尾俱裂墮, 止存中倉, 急呼小舟接登岸, 方始下船, 軍伴五六人齊上, 一時覆沒, 去岸止尋丈矣.”

등자룡의 절강수군은 애초부터 진군 일정이 상당히 지체되었다고 과신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도중에 소속 선박이 치패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군사 전력과 전체 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등자룡 집안의 기록인 『鄧維新等報』에 의하면 등자룡이 고금도에 도착한 일자가 10월 12일이다.<sup>38)</sup> 이 일자는 조명연합수군이 사로병진전략에 따라 순천만으로 이동하여 순천 왜교성 전투가 펼쳐진 이후였다. 9월 20일에 조명연합수군은 순천만 입구에 소재한 장도로 진격하여 적의 군량과 장비를 획득하고 또한 피로인을 구출해내었다.<sup>39)</sup> 따라서 등자룡은 전선의 해난 사고 수습과 전력 정비를 하는 바람에 진군 일정이 크게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11월 17일에 등자룡은 순천만 해역에 도착했고, 18일에 조명연합수군과 함께 노량 해역으로 이동했고, 19일에 노량해전에 참전했다. 등자룡은 노량해전에서 장사 2백 명과 조선 수군 15명을 이끌고 조선 판옥선으로 갈아타고 전투에 나섰다.<sup>40)</sup> 전투에 임한 등자룡은 지난 조정의 탄핵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듯이 가장 큰 전공을 세우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선봉으로 나서 오로지 공격만 일삼아 바닷물이 붉게 물들 정도로 수많은 일본군을 도륙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때 등자룡이 火毬를 던져 적선을 불태우는 화공 방식은 큰 효과를 거두었다. 진린은 등자룡이 시

38) 『橫戈存稿』 「鄧維新等報」:“(등자룡)至十月十二到汎地”

39) 陳景文『剡湖集』 권하 「曳橋進兵日錄」:“二十日辰時合攻, --- 午時, 陳都督率統制使, 乘潮列陳, 天兵望見, 舟師盛至, 莫不踴躍, 士氣益倍. 陳都督襲獐島, 取敵軍糧三百餘石, 并牛馬, 刷還囚擄人三百餘口. 分兵又搜別三日浦賊窠, 列戰艦于獐島前洋, 皆揭白旗.”

40) 『명사』 권247 「鄧子龍傳」:“璘遣子龍偕朝鮮統制使李舜臣督水軍千人, 駕三巨艦爲前鋒, 邀之釜山. 南海. 子龍素慷慨, 時年踰七十. 意氣彌厲, 欲得首功, 急携壯士二百人躍上朝鮮舟, 直前奮擊, 賊死傷無算.”; 『선조실록』 32년 2월 2일(정사)조: “本國出身十五人, 同載於鄧子龍之船而皆死, 公州出身一人生還, 問其相戰曲折, 則可謂壯也.”

도한 화공 방식을 보고 전군에게 화구로 공격하라는 명을 내어 많은 적선을 불태웠다.<sup>41)</sup>

불행히도 아군이 쏜 화구가 잘못 쏘아 등자룡이 탄 판옥선에 떨어져 불이 나서 패선 위기에 봉착했다. 이 광경을 본 일본 전선이 마구 몰려와 판옥선으로 올라와 살육을 자행하였다. 등자룡은 이들과 맞서 싸웠으나 끝내 중과부적으로 왼쪽 다리에 자상 1곳, 오른쪽 다리에 2곳, 아랫배에 1곳, 왼팔에 2곳, 가슴에 총탄 1곳을 맞아 전사했다.<sup>42)</sup> 이때 같은 배에 승선한 등자룡의 가병과 조선 수군 14명도 전사하였다.

등자룡의 목은 일본군이 전리품으로 베어 가져갔고, 나머지 유해는 전투 후에 袁州 병사에 의해 발견되었다. 등자룡이 압록강 입구 해역을 지날 때 사람 얼굴과 닮은 침향목을 건졌는데, 사라진 그의 목을 대신하였다. 등자룡의 유해는 같은 날에 전사한 이순신의 유해와 함께 노량에서 고금도로 옮겨와서 관왕묘 앞 월송대 둔덕에 안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등자룡은 군중의 돈을 한 푼도 따로 챙기지 않은 정도로 청렴한 행품을 보여주었다. 동생 鄧維新 등이 집안에다 서찰을 보내어 등자룡의 영구를 고향으로 옮겨갈 반전을 요청하며 적지 않은 고초를 겪었다.<sup>43)</sup>

조선 선조, 군문 형개, 제독 마귀 등은 모두 등자룡의 전사에 대해 비통한 마음을 표시했다. 특히 등자룡의 喪車가 한양으로 들

41) 徐希震『東征記』：“黎明副將鄧子龍駕船轟赴，計投火毬，將倭船燎焚。陳璘見火知鄧來救，省悟火攻，傳言被我燒了。我兵得令，各各放火，遇倭船即燒。倭見船船着火，我沙蒼各船又集，慌忙轉蓬星散，如龍脚蠟，通海紅光，奔趕二十里收兵，燒過倭船七八百。”

42) 『형과존고』「家人旺八續報：“[建]比·雅四·丑仔俱陣亡，老爺於二十六年十一月十九日辰時，歿於朝鮮國南順天府南海露梁島地名。身受左腿一鎗，右腿二鎗，左手一鎗，胸前一彈。”

43) 『형과존고』「등유신등보：“不要兵中之錢，無銀用，與俞千總借用。--- 今老爺陣亡，俞千總又取銀七十八兩外，眾千總們共一百六七十兩，此系老爺借他們銀用的。今老爺只有四十九兩四錢紙張口糧銀，今俞千總執去了。今我發張聰等二三人往邢老爺處，討路費，扶柩而歸。良十先發上京，或回接二叔·三叔來。愚叔在後，各處告狀，家中可帶盤纏，來接老爺棺柩。”

어오자, 선조는 친히 거동하여 치제했다.<sup>44)</sup> 반면 도독 진린이 부장 등자룡의 전사에 대해 부정적인 언사를 밝힌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진린이 왜 등자룡에 대해 부정적인 언사를 했는가에 대해 사료 결핍으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진린이 등자룡과 경쟁 관계와 그의 강한 개성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진린은 1532년(가정 11)에 광동 용원에서 태어났고, 등자룡은 1531년(가정 10)에 강서 풍성에서 태어났다. 진린과 등자룡은 모두 아집이 강하고 개성이 뚜렷하였다. 이들은 평생 광동, 운남 등 남방 지역에서 여러 지방 토호나 미얀마 군사를 진압할 때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전공을 세웠다. 이들이 역임한 관직을 보면 전반적으로 진린이 등자룡보다 조금 빨랐다. 진린은 1576년(만력 4)에 羅旁山 瑤民을 진압한 공적으로 부총병이 되었고, 등자룡은 1585년(만력 13)에 姚關에서 미얀마 침공을 막아냈다는 공적으로 부총병이 되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진린은 御倭摠兵官으로 승진하여 수로군을 이끌어갔고, 등자룡은 여전히 備倭副摠兵으로 진린의 부장이 되어 조선 해역에 나왔다. 진린의 입장에서 등자룡을 바라보는 마음은 별로 좋지 않았다. 등자룡의 나이가 많고 신체가 쇠약한 상태였고, 또한 부하 통솔과 작전 운용에 여러 문제가 일어났다. 등자룡의 절강수군이 조정 과신으로부터 탄핵을 받을 정도로 조선 해역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지체되었고, 또한 도중에 충청도에서 치패되는 사고를 당하여 수로군 전체의 전력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게다가 진린은 등자룡이 자신에게 이순신의 말을 따라 군사 진퇴를 행한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심한 모욕을 당했다고 여겼을 것이다.

44) 『선조실록』 31년 11월 21일(정미), 32년 1월 9일(경인), 3월 6일(을유)조.

## 5. 고금도 관왕묘의 조력자 季金

여기에서는 명 수군 장수 가운데 고금도 통제영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또 고금도 관왕묘를 세울 때 조력자였던 계금에 대해 알아본다.

계금의 자는 長庚이고, 호는 龍崗이며, 절강 松門 출신이다. 1568년(융경 3)에 무진사가 되었고, 海鹽備倭, 廣東潮州參將 등을 역임했다.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유격이 되어 오송 전선 10척을 거느리고 여순에 머물렀다.<sup>45)</sup> 곧이어 보직 변경이 되어 조선 해역으로 나왔다.

정유재란 초기 명 군부는 급하게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수군과 전함을 모아 조선 해역으로 보냈다. 이때 가장 먼저 파견한 수군은 유격 徐成의 浙直水兵이었다. 서성은 중군 王啓予 등 천·파총과 절직수병을 거느리고 강화도에 들어왔다. 하지만 서성이 갑자기 질병이 나는 바람에 군무 수행이 불가능해지자, 그 직책에 요동 해역에 나와 있던 계금으로 교체되었다.

1597년(선조 30) 10월에 계금은 조선 해역에 들어왔고, 11월 초에 한양에서 선조를 알현했다. 곧이어 절직수병과 선단을 거느리고 충청수영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 일부 선박이 침몰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때 계금은 불의의 사고에 대해 의젓하게 대처하였다. 이듬해 4월에 절직수병과 선단을 이끌고 오천항을 떠나 통제영 고금도로 내려갔다. 이때 오천 민초들은 계금이 그동안 자신들을 잘 보살펴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季金

45) 『경략어왜주의』 권2 「增調宣大薊遼兵馬覓調閩海商船疏」. “蓋此海道近遊擊季金見領吳松兵船十隻, 不二十日已到旅順, 無一毫損失.”

淸德碑」를 세워주었다. 비문은 교리 安大進이 쓰고, 글씨는 판관 朴思濟가 지었다. 현 오천초등학교 뒤편 언덕에 비석이 남아 있다.

1598년 4월에 계금이 이끈 명 절직수병이 통제영 고금도에 들어와 첫 번째 조명연합수군이 형성되었다. 『난중일기』 4월 26일 조에 계금과 부장들이 이순신에게 보내준 예물이 적혀 있다. 계금이 보낸 예물은 靑雲絹 1단, 藍雲絹 1단, 綾襪 1쌍, 雲履 1쌍, 香棋 1벌, 香牌 1벌, 浙茗 2근, 香椿 2근, 四靑茶甌 10개, 산닭 4마리 등이다.<sup>46)</sup> 이해 여름철에 계금의 부하들 가운데 무더운 날씨와 역질에 걸린 병든 자가 많았다.

7월에 금당도 해전이 펼쳐져 조선 수군이 일본군 69급을 참획했다. 이때 계금이 수하를 보내 수급을 나누어주기를 원하자, 이순신은 수급 5기를 나누어주었다. 9월에 계금은 순천 왜교성 전투에서 무장으로서의 활약상을 보여주었다. 계금이 탄 전선이 물때를 알지 못해 벌에 걸리자 일본군이 맹렬하게 공격해왔다. 이때 계금은 팔에 총탄을 맞은 상처를 입었으나, 일본군과 맞서 싸워 10여 급을 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sup>47)</sup> 11월 노량해전 때 계금은 많은 적을 무찌르는 전과를 거두었다. 훗날 선조가 계금을 만났을 때 노량해전에서 공이 먼저 선박에 올라 싸웠다고 덕담을 했다.<sup>48)</sup>

완도 고금면 덕동리에 옛 고금도 관왕묘, 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이 세워져 있다. 1599년(선조 32) 정월에 명 무진사 李天常

46) 『난중일기』 무술년 4월 26일조: “季遊擊所脫, 四月廿六日, 靑雲絹一端, 藍雲絹一端, 綾襪一雙, 雲履一雙, 香棋一副, 香牌一副, 浙茗二勒, 香椿二勒, 四靑茶甌拾介, 生鷄四隻.”

47) 『再造藩邦志』 제5 무술년 9월: “二十二日, 舟師乘潮而上, 鼓噪而進, 賊悉兵出城, 觀游擊季金所騎船閣於淺渚, 岸上之賊, 放丸如雨, 天兵從船上亦放大鉛子. 行長揮兵督進, 賊二十餘, 直涉淺渚, 攔止其船, 季金鼓其軍抗戰, 斬十餘級. 賊少却, 遂刺船而去.”; 『난중일기』 무술년 9월 22일조: “朝進兵出入, 而遊擊中丸左臂, 不至重傷, 唐人十一名中丸而死. 知世萬戶, 玉浦萬戶中丸.”

48) 『선조실록』 32년 4월 22일(신미)조.

이 쓴 「古今島關王廟創建事實」에 고금도 관왕묘가 세워진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1598년(만력 26) 6월에 진린은 天津橋에 있을 때 관우가 나타나 전장에서 필승할 비법을 알려주는 꿈을 꾸었고, 또 북경 正陽門廟에서 관우상을 알현했다. 동년 가을에 고금도에서 또다시 관우가 나타나서 묘우를 세워주기를 원하자 즉시 수백 금을 내어 묘도 湧金山(현 勇劔山) 아래, 즉 현 위치에 관왕묘 건립에 나섰다. 9월에 고금도 관왕묘가 낙성되었다.

고금도 관왕묘를 건립할 때 조력자로 활동했던 계금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이 사실은 이천상의 「고금도관왕묘창건사실」에 자세히 나와 있다. 첫째, 고금도 관왕묘가 낙성되자 진린과 계금은 함께 나가 치제했다. 둘째, 묘우 현판 ‘威揚萬里’ 말미에 새긴 ‘萬曆戊戌季秋吉朝與浙直水營官兵同立’ 지기에 묘우를 절직수병과 함께 세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셋째, 15척이나 되는 정전 목판에 ‘總督禦倭總兵官都督府都督嶺南陳璘, 統領浙直水營游擊將軍天台季金’이라며 진린과 계금의 이름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고금도 관왕묘가 진린이 건립비용을 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금과 절직군사가 조력 역할을 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sup>49)</sup>

끝으로 조명연합수군 시절에 세워진 고금도 관왕묘의 의의에 대해 적어본다. 고금도 관왕묘가 조선 참전에 나선 명 수군에 의해 세워졌지만, 그 속에 외세 침략을 결연코 막아내고자 하는 무인 정신이 살아있는 애국 장소이다. 고금도 관왕묘 앞 월송대

49) 李天常「古今島關王廟創建事實」：“皇朝萬曆戊戌六月日，欽差總領水兵禦倭總兵官前軍都督府都督僉事陳公璘，受命征倭，率廣兵五千，自天津橋來。——至康津古今島，又感求廟之夢。出白金數百兩。與浙直水營游擊將軍天台季金，共設建廟于本島湧金山下。——廟額揭威揚萬里四大字，皆以粉書之也。額末題曰：萬曆戊戌季秋吉朝與浙直水營官兵同立。又以十五尺木板，以青書之，曰總督禦倭總兵官都督府都督嶺南陳璘，統領浙直水營游擊將軍天台季金。此即萬曆戊戌六月初吉皇差二公職帖之板也。”

는 노량해전 때 뜨거운 선혈을 바다에 뿌리고 순국한 조선의 이순신과 명 등자룡의 유해를 한동안 안치해놓은 장소이다. 1666년(현종 7)에 진린을 東廡, 1683년(숙종 9)에 이순신을 西廡에 각각 모셨고, 1792년(정조 16)에 등자룡을 추배했다. 1940년대 일제의 탄압으로 고금도 관왕묘의 제단과 기물이 철거되었지만, 건물 자체는 건립 당시의 모습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해방 이후에 다시 이충무공유적으로 되살아나 많은 사람이 참배하는 장소가 되었다.

## 6. 결론

고금도 통제영 시기는 임진왜란 때 조선 해역을 다시 수복하고 쓰러져가는 국가의 운명을 계속 이어가게 했던 한국 수군사의 한 장면을 차지했다. 고금도 통제영을 이끌던 이순신은 최후의 결전인 노량해전에서 대첩을 거두는 위업을 달성했지만, 그 자신은 생명을 내놓아야 했다. 또 조명연합수군이 본격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적에 대해 최후의 일격을 가하여 승전을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명의 등자룡, 陶明幸, 조선의 李英男, 方德龍, 高得蔣 등 10여 명 장수도 순국했다.<sup>50)</sup>

전투 수행이 가능한 명 수군의 파병은 1596년(선조 29) 11월에 선조의 요청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선조는 명나라에 주문을 보내면서 일본군이 두려워하는 것이 주사이니 명나라가 주사를 파견하여 조선 수군과 협동하여 적들을 소탕해주기를 요청했다.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명 군부는 자국의 영해를 사전에

50) 『선조실록』 31년 11월 27일 이덕형 치계.

방비하고 조선 수군의 병력 부족을 내세워 전투 수행이 가능한 수군 5천 명을 보냈다.

1597년(선조 30) 7월에 원군의 조선 수군이 칠전량해전에서 거의 전멸당하자, 명나라는 일본군이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면 조선 왕경(한양)은 말할 것도 없고 자국의 영해 안보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규모 수군 파견이 이루어졌다. 조선 참전에 나설 수군의 병력 규모는 크게 두 차례 모집 방안을 거쳐 총 2만 1천 명으로 정해졌다.

1598년(선조 31) 4월에 유격 계급을 필두로 이순신의 통제영이 소재한 고금도에 처음 내려왔고, 7월에 도독 진린의 본진이 내려오면서 본격적인 조명연합수군이 결성되었다. 사로병진전략이 전개되어 순천 왜교성을 공략할 때 명 수군의 병력 규모는 1만 8천 9백 명이다. 곧이어 전개된 노량해전 때에도 이와 같은 병력 규모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노량해전까지 미도착한 장양상의 수병 1천 5백 명을 더하면 당초 명 군부가 세웠던 조달 방안 2만 1천 명과 일치한다.

도독 진린은 정유재란이 발발했을 때 한때 수군부장의 후보로 올랐다가 양문이 천거되는 바람에 부총병으로 광동영병 5천 명을 거느리고 육로로 전장에 나서게 되었다. 도중에 수군부장 양문이 질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자, 진린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 명 수군을 이끌어 가게 되었다. 진린은 이순신을 무척 신뢰하였다. 전투에 있어서 이순신의 말을 따라 군사 진퇴를 행하였고, 전란이 끝나 상경할 때 특별히 이순신의 영구가 모셔져 있는 아산을 찾아가 이순신의 자식들에게 문상하였다.

부총병 등자룡은 군문 형개의 천거로 다시 부총병에 기용되었다. 참전 도중에 절강수군 3,154명을 거느린 유격 심무가 육군으로 보직 변경되자, 등자룡이 원 심무의 수병을 이끌고 조선

해역에 나왔다. 등자룡 휘하 중군 방일신의 선단이 충청도 해역에서 치패되는 바람에 소속 수군의 진군 과정이 지체되고 적지 않는 전력 손실을 보았다. 등자룡은 조선 참전에 나섰을 때 70세에 가까운 고령인 데다가 손발이 마비되고 귀가 먹었다. 그런 데도 노량해전 때 최일선에 서서 돌격을 전개하다가 뜨거운 선혈을 바다에 뿌리고 전사했다. 진린이 등자룡의 전사에 대해 늘고 쇠약하여 당초 출전하지 않았느냐 되는데 이제 죽게 되어 누구를 원망하느냐는 말을 남겼듯이 명 수군의 수뇌부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은 견제와 마찰이 있었다.

유격 계급은 정유재란 초기에 수군을 거느리고 여순에 머물고 있다가 선발대로 내려간 서성이 질병이 나는 바람에 교체되어 조선 해역에 나섰다. 한동안 강화도, 오천 충청수영 등지에 머물다가 1598년(선조 31) 4월에 고금도에 내려와 첫 번째 조명연합 수군을 결성하였다. 순천 왜교성 전투와 노량해전 때 많은 적을 죽이는 전공을 세웠다. 1598년(선조 31) 9월에 진린이 주도한 고금도 관왕묘가 낙성되었다. 묘우 현판에 진린과 계급의 절직 수병이 함께 묘우를 세웠고, 또 정전 목판에 진린과 계급의 이름이 나란히 있는 점을 보아 계급이 고금도 관왕묘를 창건한 조력자라고 할 수 있다. [栗下寄室; 癸卯芒種]

## 〈참고문헌〉

- 邢玠, 『經略御倭奏議』, 明萬曆年間刊本.  
 編著未詳, 『壬辰筆錄』, 抄本.
- 李敏雄, 『임진왜란해전사』, 청어담미디어, 서울, 2004.
- 박제광, 「丁酉再亂期 朝·明水軍의 聯合作戰과 露梁海戰」, 『이순신연구논총』, 6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6.
- 이상훈, 「임진왜란 전 이순신의 행적과 가문의 상황」, 『이순신연구논총』, 10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8.
- 이종화·윤현식, 「노량해전의 조명연합수군 규모」, 『군사』, 126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3.
- 朴現圭, 『임진왜란 중국 사료 연구』, 보고사, 고양, 2018.
- , 「丁酉再亂부터 鳴梁大捷까지 明 水軍의 派兵과 運營 고찰」, 『진라남도 정도 1000년의 해 명량대첩 기념 전남 권역별 학술 세미나』, 명량대첩기념사업회, 2018.09.08.
- , 「對壬辰倭亂中明軍相關史籍——《壬辰筆錄》的考察」, 『中華文明與古代中外關係國際學術研討會』, 山東大學歷史文化學院, 2023. 10.14.

〈Abstract〉

## The Participation of Ming Dynasty Naval Forces and Commanders during the Jeongyu War(丁酉再亂)

Park, Hyun-Kyu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participation and activities of the Ming Dynasty naval forces during the Gogeu Island(古今島) Naval Headquarters period in the Jeongyu War.

The deployment of Ming naval forces was initiated by King Seonjo(宣祖)'s request just before the outbreak of the war, stating that the only force the Japanese feared was the Zhu military forces, and he hoped for the joint effort of Joseon and Ming naval forces to annihilate the enemy. After the outbreak of the Jeongyu War(丁酉再亂), the Ming military assembled 5,000 naval forces in response to the lack of manpower in the Joseon navy and to preemptively defend their territorial waters. Following the Battle of Chilcheollyang(漆川梁海戰), the Ming military decided, after two rounds of deliberations, to send a total of 21,000 naval troops. At the Battle of Suncheon Japanese Fortress, 19,800 Ming naval forces participated, and if the 1,500 troops led by Zhang Liangxiang(張良相), who had not yet arrived, were added, the number would match the originally planned figure for the Ming naval deployment.

Chen Lin(陳璘) initially led the Guangdong army overland, but after the illness of the naval commander Yang Wen(楊文), he took over the position and assumed overall command of the Ming naval forces.

Deng Zilong, who led the Zhejiang navy, replaced Shen Mao(沈茂), who had been reassigned to the land forces, and sailed to the waters of Joseon. Despite suffering from paralysis and deafness at the time of his participation, Deng Zilong fought at the forefront in the Battle of Noryang(露梁海戰) and ultimately died in action. As Chen Lin noted, the hidden friction between commanders was evident when he remarked that Deng Zilong(鄧子龍), though old and frail, died in battle after participating. Ji Jin(季金) was the first to arrive at Gogeu Island Naval Headquarters and formed the first Joseon–Ming combined naval forces((朝明聯合水軍). The Guan Yu Shrine(關王廟) at Gogeu Island was initiated by Chen Lin, with Ji Jin providing assistance.

Keywords: Gogeu Island(古今島) Naval Headquarters(統制營), Gogeu Island Guan Yu Shrine(關王廟), Joseon–Ming combined naval forces(朝明聯合水軍), Lee Sunsin(李舜臣), Chen Lin(陳璘), Deng Zilong(鄧子龍), Ji Jin(季金)

